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준비 유형과 취업 성과

-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은 취업준비성숙형(22.1%), 취업준비탐색형(50.3%), 그리고 취업준비유예형(27.6%)으로 구별되었음.
- 직업계고인 특성화고는 취업준비성숙형 : 취업준비탐색형 : 취업준비유예형이 15.0% : 49.5% : 35.5%였고 마이스터고는 40.1% : 52.2% : 7.7%로, 특성화고에는 취업준비유예형이, 마이스터고에는 취업준비성숙형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취업준비성숙형의 경우가 졸업 직후 취업한 비율(48.4%)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준비유예형은 진학한 비율(35.9%)이 가장 높았음.
-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취업준비성숙형(34.8%)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취업준비유예형의 경우는 미취업 상태 유지(53.3%)가 가장 많았음.

주

이 글은 '이정민·유영환(2021). 『직업계고 학생의 개인적 자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일부 발췌, 정리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예측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개인적 자원의 특성 파악이 필요함.

- 정부는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직업계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보안을 목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계고 특성화 교육을 통한 고졸 취업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학교 안팎의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진입을 이끌어 내는 취업 결정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Ⅱ를 활용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개인적 자원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나타나는 졸업 직후의 취업상태와 1~2년 후의 취업 유지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의 유형과 노동시장 진입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고용패널(KEEP)Ⅱ」 1차, 3차, 4차년도 자료

- 분석 대상 : KEEPⅡ에 참여한 직업계고 학생 총 3,615명(마이스터고 1,020명, 특성화고 2,595명)의 응답을 분석함.
 - 그중 남학생은 2,285명(63.2%), 여학생은 1,330명(36.8%)임.
-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선행연구 고찰과 직업계고 교사 및 학생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KEEPⅡ에서 활용 가능한 변수 중에서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의 요소를 선정함.



KRIVET 모바일용

02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의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학교 유형별 분포

|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3개 유형으로 구분됨.

- KEEP II의 1차년도 자료 중 직업계고 학생 3,615명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의 응답을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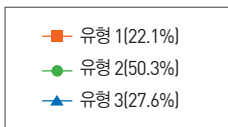
〈표 1〉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통계분석 결과

추정 집단 수	AIC	BIC	SSABIC	LMRLRT P	BLRT P	Entropy	# classes with <1%
2	546806.373	547128.330	546963.100	0.000	0.000	0.841	0
3	544487.976	544921.379	544698.954	0.000	0.000	0.815	0
4	543797.953	544342.800	544063.182	0.000	0.000	0.778	0

각주

1) 자세한 명명의 근거는 '이정민·유명환(2021). 『직업계고 학생의 개인적 자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제시되었음.

- 유형 1(22.1%)은 '취업준비성숙형', 유형 2(50.3%)는 '취업준비탐색형', 유형 3(27.6%)은 '취업준비유예형'으로 명명함.¹⁾



주

개인 특성 : 1. (취업을 위한) 직업 계고 진학 동기, 2. 자신의 미래직업 결정 여부, 3. 전문교과에 관한 이해와 관심, 4. 전반적인 수업 태도, 5. 학습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6.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성숙도, 7. 학생의 자기에 대한 이해, 8. 학생의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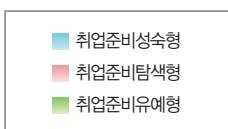
학교생활 : 9.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10. 교사의 긍정적인 평가(교사 응답 변수), 11. 전문교과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학생의 인식), 12.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진로 및 취업 관련 교육 참여 : 13. 진로 교육 및 활동 참여 수, 14. 교내외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수, 15. 교내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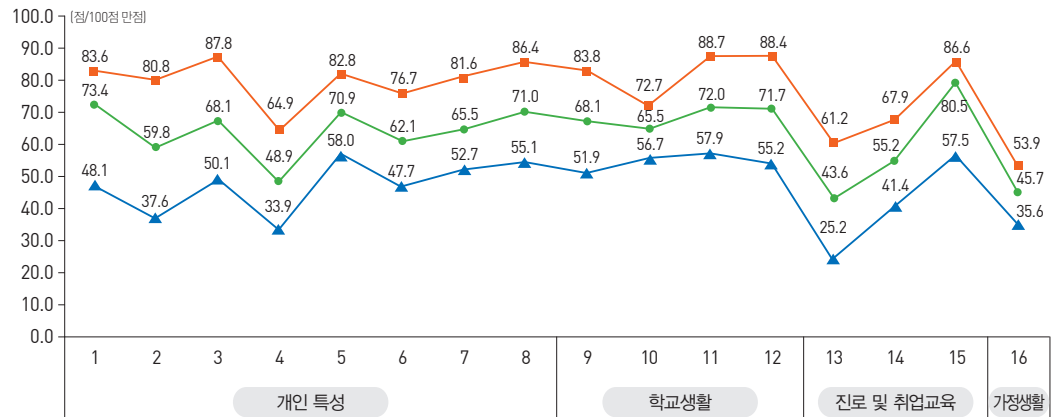
가정생활 : 16. 부모(주 양육자)와의 관계.

각주

2) 교육부(2020). 『안전하고 좋은 고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연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첫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11월 27일).



〈그림 2〉 학교유형별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 유형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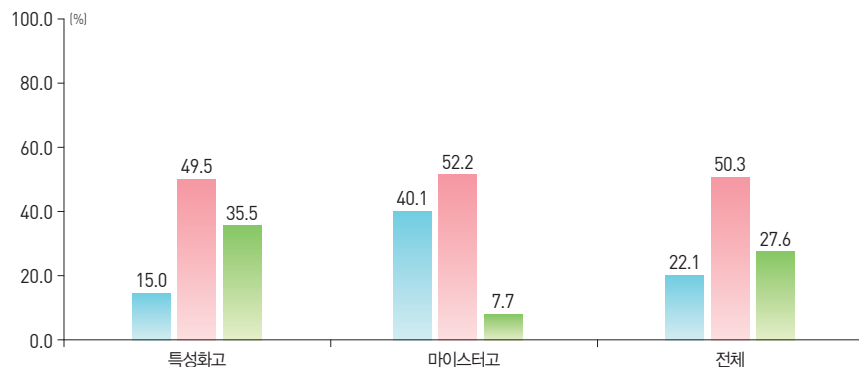


〈그림 1〉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 프로파일 분포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²⁾결과에서 취업률에 차이를 보였던 특성화고(취업률: 49.2%)와 마이스터고(취업률: 71.2%)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의 유형별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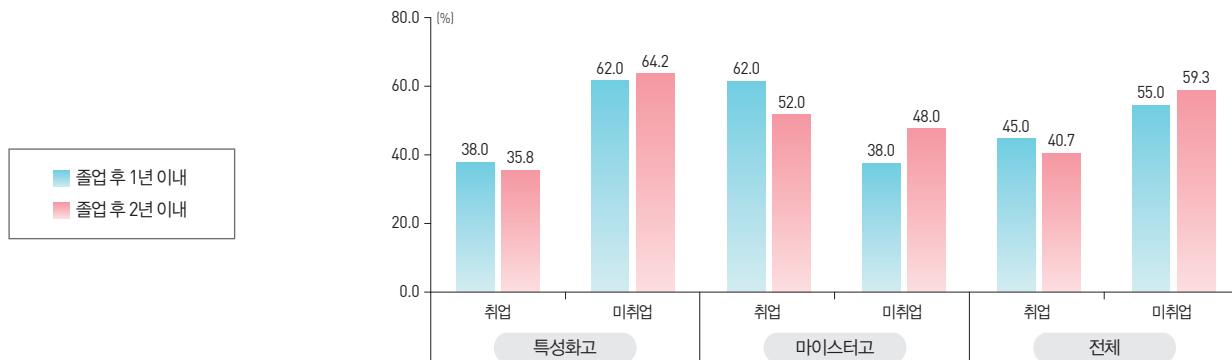
– 직업계고의 두 유형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취업준비유예형과 취업준비성숙형은 극명한 분포 차이가 있음. 마이스터고에는 취업준비성숙형(40.1%)이 취업준비유예형(7.7%)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고, 특성화고에서는 취업준비유예형(35.4%)이 취업준비성숙형(15.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음.



03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 유형과 직업계고 졸업 직후 취업여부 관련성 분석

|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여부는 졸업 후 1년 이내보다 졸업 후 2년 이내에 소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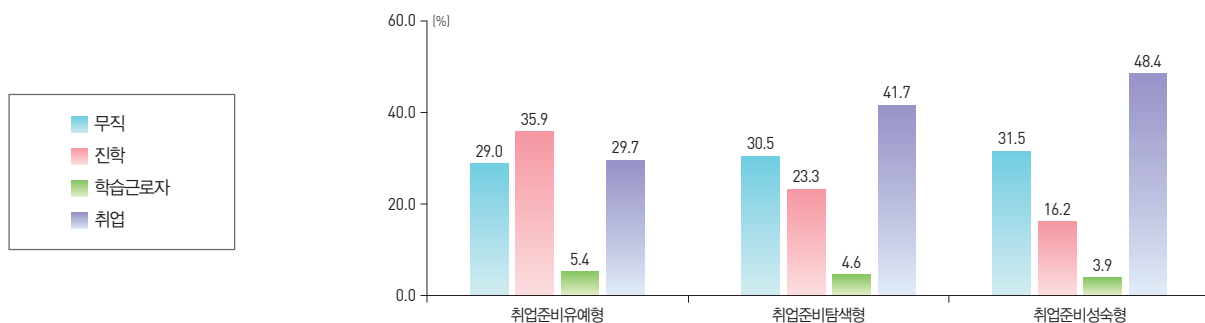
- KEEPⅡ의 직업계고 응답자들의 3차년도(2019년 수집)와 4차년도(2020년 수집)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 현황을 확인함.
 - 직업계고 졸업 후 1년 이내에 조사에서 직업계고 응답자 중 45.0%가 설문 응답 당시 직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성화고의 졸업생의 38.0%,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62.0%가 현재 자신이 “취업 중”이라고 응답함.
 - 졸업 후 2년 이내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비하여 다소 떨어진 40.7%가 “취업 중”이라고 응답함.



[그림 3]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현황

| 취업준비성숙형인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교 졸업 직후 취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직업계고 학생들 대부분이 속해 있는 ‘취업준비탐색형’의 경우는 53.8%가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무직, 30.5%)이거나 진학을 한 상태(23.3%)로 나타났으며, 46.2%가 취업의 형태인 학습근로자(4.6%)와 현재 직업이 있는 상태(취업, 42.7%)로 나타남.
- 취업준비유예형은 64.9%가 취업 외의 상태인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무직, 29.0%)과 진학(35.9%)으로 나타났으며, 35.1%가 취업의 형태인 학습근로자(5.4%)와 현재 직업이 있는 상태(취업, 29.7%)로 나타남.
- 취업준비성숙형의 경우는 47.7%가 취업 외 상태인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무직, 31.5%)과 진학(16.2%)으로 나타났으며 52.3%가 취업의 형태인 학습근로자(3.9%)와 현재 직업이 있는 상태(취업, 48.4%)로 나타남.



[그림 4]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 유형에 따른 취업 여부

04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 유형과 취업 유지와의 관련성

| 졸업 후 2년동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유지 비율은 29.9%로 나타남.

- KEEPⅡ의 3차년과 4차년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 유지 비율을 확인한 결과는 <표 2>과 같음.
 - 전체 응답자 2,488명 중 745명(29.9%)이 2019년과 2020년 모두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³⁾

[각주]

3) 모두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졸업생 중 637명(85.5%)은 두 해 모두에서 같은 일자리에 재직 중인 것을 확인

- 2019년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2020년 조사 당시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5명(11.9%)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일자리가 있었으나 2020년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68명(14.8%)으로 나타남.
- 2019년과 2020년 모두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080명(43.4%)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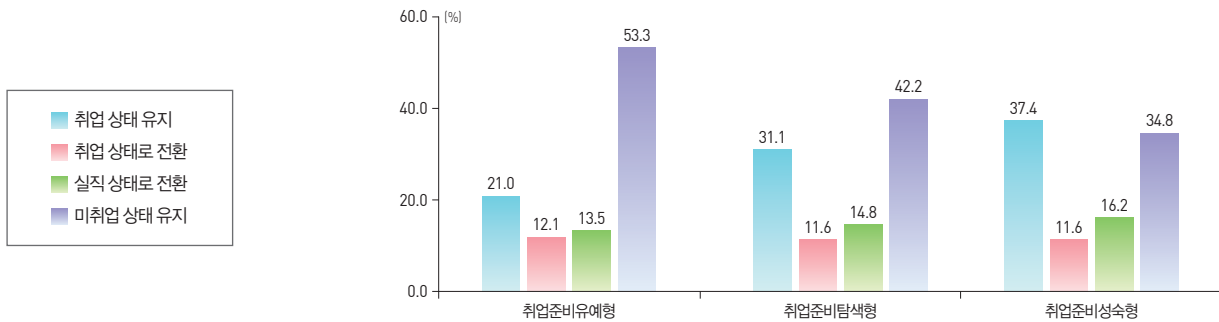
〈표 2〉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유지 현황

(단위: 명(%))

		2019년 일자리 유무 (졸업 후 1년 경과)		전체
		있음	없음	
2020년 일자리 유무 (졸업 후 2년 경과)	있음	745 (29.9)	295 (11.9)	1,040 (41.8)
	없음	368 (14.8)	1,080 (43.4)	1,448 (58.2)
전체		1,113 (44.7)	1,375 (55.3)	2,488 (100.0)

| 취업준비성숙형의 취업 유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 상태 유지는 가장 낮음.

- 취업준비성숙형의 학생들이 취업 상태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37.4%),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음(34.8%). 하지만, 실직 상태로 전환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16.2%).
- 취업준비유예형의 경우는 낮은 취업 유지(21.0%)와 높은 실업 유지(53.3%)를 나타냄.



[그림 5]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 유형에 따른 취업 유지의 정도

05 시사점

-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 유형을 ‘취업준비유예형’, ‘취업준비탐색형’, ‘취업준비성숙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확인함.
- 졸업 직후 취업상태는 직업계고 학생의 개인적 자원의 유형보다는 학교효과가 크게 나타났음. 이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산업체 수요와 연계한 취업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은 마이스터고의 효과를 확인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음.
- 직업계고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의 취업 유지율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을 위한 개인적 자원의 수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는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관련 개인적 자원인, 진학동기,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로 성숙과 자존감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취업준비행동 등이 직업계고 졸업 직후인 1~2년 사이의 취업 및 취업 유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육의 방향과 이를 통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 정 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유 명 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